



뉴스라인은 일간지, 잡지, 컴퓨터 통신 정보란 등에 올라있는 기사 중에 광학과 관련된 내용을 발췌해서 게재하고 있으며, 낱짜와 게재지를 수록하지 않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신 분은 '광학세계' 편집부로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카메라)

삼성, 中 내수시장 공략 본격화

삼성이 주요 계열사를 주축으로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형도(李亨道) 삼성전기, 박영구(朴泳九) 삼성코닝, 이중구(李重求) 삼성항공 사장 등 삼성그룹의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진들이 이달 들어 중국 현지를 잇달아 방문, 현지 전략 회의를 갖는 등 중국 마케팅력 강화 및 생산체질 개선작업에 돌입했다. 중국 내수 시장이 예상 밖의 속도로 급팽창함에 따라 현지시장 마케팅 전략 및 생산품목 조정 등을 서두르기 위해서다.

또 카메라, 섬유 의류 등 일부 품목의 경우 중국을 핵심 생산기지로 전환, 중국 내수시장

은 물론 세계시장 공략 거점으로 승격시켜나갈 방침이다.

삼성항공 역시 중국 내수시장 판매목표를 지난해보다 40% 이상 늘려잡고 이중구 사장이 직접 현지를 방문해 생산 및 마케팅력 점검에 들어갔다.

특히 텐진공장의 생산품목은 기존의 보급형에서 벗어나 줌 카메라 중심의 고급형으로 재구성하는 등 텐진을 카메라 생산 핵심기지로 전환하는 동시에 중국 내수시장의 판매거점으로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세계 디지털 카메라시장, 올해도 급성장 전망

최근 3년간 60~70%라는 높은 성장세를 계속해 온 세계 디지털카메라 시장이 고급 신제품의 대거 출시 등으로 올해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사진기공업회가 내놓은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세계 디지털카메라 시장은 올해도 40% 이상 성장해 그 규모가 전년의 509만대에서 800만대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 같은 전망은 300만 화소(3메가픽셀) 이상의 고체촬상

소자(CCD)를 탑재하거나 3배 줌의 광학렌즈를 장착한 고급 신기종이 대거 출시돼 수요를 촉진시키는 한편 지난해부터 미국과 유럽 등 시장이 크게 성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후지사진필름(<http://www.fujifilm.co.jp>), 올림퍼스광학(<http://www.olympus.co.jp>), 소니(<http://www.sony.co.jp>), 산요전기(<http://www.sanyo.co.jp>) 등 일본의 주요 디지털카메라 관련 업체 9개사는 3메가픽셀급 기종이나 메가픽셀에 광학3배줌렌즈를 탑재한 초고급 기종 등 신제품 10개 모델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들 신제품 가격은 8만8000엔에서 12만8000엔에 이른다.

후지필름의 경우 이달 초 432만 화소 CCD를 장착한 4메가픽셀을 업계 최초로 출시했다.

특히 3메가픽셀 제품의 등장은 2메가픽셀 모델의 구입을 촉진시켜 시장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지역별 시장 규모는 일본이 230만대, 유럽과 미국 등이 570만대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신상품 정보

에스컴시스템, 카시오 300만화소급 디지털카메라 출시

에스컴시스템(대표 김정주 <http://www.escom.co.kr>)은 일본 카시오사의 300만화소급 디지털카메라 'QV-3000EX'를 국내에 공급한다고 3월 26일 밝혔다.

QV-3000EX는 334만 화소의 원색CCD를 채용, 2048×1536의 해상도를 구현할 수 있는 고성능 디지털카메라로 광학 3배줌 기능에 밝기가 F2.0인 캐논 렌즈를 채용, 기존 디지털카메라에 비해 피사체의 미세한 부분까지 촬영이 가능하다. USB 접속단자와 자동전송프로그램(Photo Loader)을 갖춰 PC와의 데이터 교환이 손쉽고 폴사이즈의 원본 사진과 e메일 첨부용 축소사진이 한꺼번에 자동으로 전송돼 별도 손질이 불필요하다.

5월과 6월에 단초점 300만화소 제품과 광학 8배줌 200만화소 제품을 연이어 출시하고 하반기에도 2~3개 모델을 추가로 출시할 계획이다.

반다이, 저가 디지털카메라 4월 출시

일본 반다이(<http://www.bandai.co.jp>)는 젊은 여성층을 주 타겟으로 디자인을 강조한 디지털카메라 'C@mail'을 출시한다고 발표

했다.

정지영상뿐 아니라 동영상도 촬영할 수 있는 이 제품은 영상편집소프트웨어(윈도98 대응)를 내장, 촬영한 영상에 특수효과를 첨가하거나 영상에 낙서도 할 수 있다.

화소수는 12만이고 본체 내장 메모리에 정지영상은 352×288도트 크기(10만 화소)의 경우 20장, 176×144도트(3만 화소)는 80장까지 기록 가능하다.

산요 동영상 기능 디지털카메라

일본 산요전기(<http://www.sanyo.co.jp>)는 음성을 곁들인 동영상을 초당 30컷 촬영할 수 있는 디지털카메라 신제품을 최근 출시했다고 발표했다.

산요의 신형 디지털카메라 'DSC-SX550'은 지난해 8월 내놓은 'DSC-SX150'의 후속機種으로 동영상 촬영 기능이 2배로 향상됐을 뿐 아니라 정지 영상도 초당 최대 50컷까지 촬영가능하다.

150만 화소의 고체촬상소자(CCD)를 탑재하는데 유효 화소수는 140만이고, 렌즈는 단초점이다. 화각은 35mm필름 환산으로 38mm이고, 파인더는 광학 파인더와 1.8인치형 박막트랜지스터 액정표시장치(TFT LCD)를 탑재했다. 가격은 6만8000엔이다.

<복사기>

HP-제록스 특허분쟁 화해

미국 휴렛팩커드(<http://www.hp.com>)와 제록스(<http://xerox.com>)간의 특허분쟁이 막을 내렸다.

이들 두 회사는 제쟁중인 모든 특허 관련 소송을 취하하고

화해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취하한 소송에는 98년 5월부터 99년 6월에 걸쳐 제기된 6건이 모두 포함된다.

이들은 소송에서 제록스는 잉크젯, 컬러벨런스, 해상도향상 기술 등을 사용한 HP 제품에 대해, HP는 터치스크린 유저 인터페이스, 잉크젯, 화질향상 기술 등을 사용한 제록스 제품에 대해 자사 특허를 침해

했다고 제소했었다.

제록스·샤프·후지제록스 제휴

미 제록스가 잉크젯 프린터 분야 세계 선두업체인 휴렛팩커드에 대해 일본 샤프, 후지제록스와 3자 연합을 구축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3개 업체는 인쇄 속도가 빠르면서도 가격이 저렴한

잉크젯 프린터 개발과 제조에 앞으로 3~4년 동안 모두 20억달러를 함께 투자하게 된다.

제록스가 일본 후지필름과의 합작기업인 후지제록스, 가전제품업체인 샤프와 함께 이번 3자 연합을 구축한 것은 최근 경영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분석된다. 제록스는 올 1월 말 종료된 99사업연도 4분기 중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하는 부진을 보였다.

세계 잉크젯 프린터시장은 현재 570억달러 규모로 매년 두자리수의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레이저>

국내 최대 출력 '화학 레이저' 개발

화학연료 반응에서 얻어지는 막대한 에너지를 이용해 레이저를 발생시킬 수 있는 국내 최대출력의 화학레이저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한국원자력연구소 양자광학기술개발팀 김철중 박사팀은 14일 총 17억7000여만원을 투입, 2년간에 걸쳐 현대중공업·한국전광·케이맥과 공동으로 국내 최고수준인 연속출력 2.2kW급 화학레이저의 일종인 '코일(COIL: Chemical Oxygen Iodine Laser)'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다.

이번에 개발한 화학레이저인 코일은 과산화수소 및 가성칼리(KOH)가 혼합된 화학연료와 염소가스의 환원반응에서 얻어지는 고에너지 산소가 요오드와 반응, 1.3 μ m 파장의 레이저를 최대 2.2kW의 출력으로 최대 4~5분 연속해서 발진시킬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TB 레이저 용접시스템 국산화

기계硯 한유희 박사팀

두께가 서로 다른 강판을 완벽하게 용접할 수 있는 테일러드블랭크(TB) 레이저 용접시스템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한국기계연구원 레이저기술연구그룹 한유희 박사팀은 지난 92년부터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의 「에너지·자원 기술 시범적용사업」의 일환으로 테일러드블랭크레이저 용접시스템을 연구해오다 96년부터 성우금속과 공동으로 자동차 차체 부품개발 및 용접시스템 국산 1호기를 개발해 성공적으로 시험가동을 마쳤다고 21일 밝혔다.

테일러드블랭크 용접시스템은 기존 방식이 두께간 서로 다른 강판을 용접할 수 없어 보강재를 덧붙여 성형해 쓰던 것을 용접에 필요한 강판을 미리 일체화시키는 새로운 방식을 도

입해 용접한 후 이를 성형하는 기술이다.

<기 타>

주요 전자부품·산전업체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

주요 전자부품 및 산업전자업체들이 기업간 전자상거래(B2B)를 근간으로 한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에 본격 나서고 있다.

3월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일반적인 기업간 거래질서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삼성전자·대덕전자·필코전자·한국GE프라스틱 등 주요 전자부품업체들이 세트 및 협력 업체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시스템을 구축, 운영에 들어갔다. 또 LG전선·한국하니웰 등 산전업체들도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전자부품·산전업체의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 바람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PC카메라로 할 수 있는 일?

화상채팅 및 화상회의를 즐기자. -PC카메라까지 설치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 먼저 해보고 싶은 것이 화상 채팅이 아닐까. 더 나아가서는 화상회

의도 가능하다.

먼저 인터넷상에 화상채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회원 가입 후, 각 사이트마다의 특정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받아 설치해 사용하면 된다.

〈화상채팅사이트〉

시앤조이(www.seenjoy.com), 매리넷(www.marrynet.com), 모두모두(www.modumodu.co.kr), 핑(ping.hani.co.kr), 화상회의사이트(Globiz21:www.GloBiz21.com)

· 동영상 E메일을 보내 보자.-글자로만 된 E메일이 아닌 자신의 영상과 음성을 담은 E메일을 보낼 수 있다.

· 캡처화면으로 자신만의 앨범을 만들어 보자.-카메라를 통해 캡처된 사진을 사용자가 직접 편집을 하거나 배경화면 등을 넣어서 자신만의 앨범을 제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있다. 이런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자신만의 앨범을 만들 수 있다.뿐만아니라 성능이 좋은 컬러 프린터만 있다면 스티커사진기가 따로 필요없다.

· 내 PC가 감시카메라 역할도 할 수 있다.- 움직임을 검출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해 무단 침입을 감시할 수 있다. 알파비전텍(www.avtech.co.kr)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WatchEye를 실행하면 움직임을 검출해 사용자의 컴퓨터에 저장하고 지정된 전화번호로

연락 해주는 기능을 한다.

라이프스타일, 웹카메라 보급러시

회의나 감시목적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그대로 보여주는 '라이프스타일 웹카메라'가 전국 거리와 업소에 대량보급됨에 따라 새로운 인터넷 사업인 프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인터넷상에서 동영상을 실시간 전송하는 웹카메라는 공장의 생산라인 감시나 방범용, 영상회의에 적합한 기업용 솔루션으로만 인식돼왔으나 최근 도심지의 옥상이나 당구장 내부까지 웹카메라를 설치, 연계하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안에 최소 5만~10만대가 보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보텍(대표 최병모)은 전국 카페와 식당, 호텔 등의 업소 전경을 인터넷상에서 24시간 보여주는 홈페이지 제작사업을 시작한다.분위기 좋은 카페나 관광지 풍경 등을 실시간 전송할 경우 고객유치와 홍보효과가 높다는 점을 업주들에게 인식시켜 올해 안에 4만여 곳의 웹카메라 사이트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을 위해 초당 15프레임 이상 고화질 전송이 가능한 동영상압축솔루션 '보보부'를 개발한 상태며 자사 홈페이지(http://www.vovo.co.kr)를 통해 웹카메라 각도를 원격조절하는 기능도 지원

할 예정이다.

114닷컴(대표 추연수)은 오는 6월까지 전국 1만5000여 PC방업체 전용선을 기반으로 하는 '라이프스타일 웹카메라'망 구축작업에 들어간다.

지역정보포털을 지향하는 114닷컴은 PC방마다 깔린 전용선을 이용해 전국 거리의 풍경을 실시간 전송할 경우 자체 홈페이지(http://www.114.com)내에서 원하는 장소를 눈으로 찾아보는 지리정보시스템(GIS)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PC방 주변의 여러 업소에도 웹카메라를 설치, 전용선으로 연결해 지역상권 홍보망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금호개발은 경남 충무시의 마리나리조트 본관 모습(http://www.kumhore sort.co.kr)을, 삼성물산은 자사의 사이버아파트 건축장면, 피닉스파크와 지산리조트는 스키장 전경을 24시간 보여주는 등 라이프스타일 웹카메라의 적용범위가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다.

보안관련 제품 수출품목 '급부상'

보안관련 제품들이 수출 유망상품으로 부상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니트젠과 산내들인슈, 휘스트, 쓰리알 등 보안장비 생산업체들이 해외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

고 있는 가운데 올들어 이 업체들이 잇따라 수출계약 체결에 성공해 앞으로 보안관련 제품의 수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문인식기 생산업체인 니트젠(대표 안준영)은 최근 일본의 보석장식 메이커인 ING사에 연간 10만개, 80억원 규모의 지문인식용 마우스를 수출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 로지텍, 일본의 샤프와 다이와증권 등이 자사 제품에 지문인식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

니트젠은 지난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컴덱스쇼에 미국 법인인 시큐젠을 통해 지문인식 마우스를 출품, 개인용 컴퓨터(PC) 주변기기 부문 최우수제품상을 받으면서 전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으며, CNN에 보도되면서 급부상했다.

지난해부터 지문인식센서의 생산에 들어간 산내들인슈(대표 이기덕)는 지난달 홍콩 및 중국업체와 각각 500만달러 및 150만달러 규모의 지문인식장비 수출계약을 체결, 해외시장 진출에 첫발을 내디뎠다. 최근 독일에서 열린 세빛전시회에 참가해 유럽의 보안관련 업체 등과 1000만 달러 이상의 지문인식센서 수출계약을 체결하는데 성공했다.

생체인증 지문인식 출입통제 시스템 생산업체인 휘스트(대표 김종민)는 지난달에 이란 정부와 250만달러 이상의 지문인식시스템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이밖에 DVR 생산업체인 코디콤과 쓰리알, 최근 보안장비 시장에 진출한 포스데이터와 삼성전자 등도 사업 확대를 위해 해외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어 앞으로 보안장비 생산업체들의 수출 계약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광학기기협회 회원 가입안내

한국광학기기협회는 공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자원부 산하단체로서 우리나라 광학산업 발전을 위한 공익사업 및 회원사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첨단기술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국내 광학산업의 공동발전을 위해 회원가입을 안내하오니 희망업체에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회원구성 : 정회원 및 특별회원

2. 회원 서비스 및 특전

- 국내외 광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 기술개발지원 자금안내 및 사업참여
- 동종업계 공동사업 참여 및 교류
- 협회발간 '광학세계'에 업체 및 생산제품 홍보
- 정책지원 대상업체 추천, 확인 및 수혜 안내

3. 가입금 및 기본회비 : 업체규모에 따라 차등

4. 가입신청 및 문의

전화: (02)581-2321